

사료가 지니는 효율 구입토록

양축가는 경영비의 과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싼 사료만 구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료효율면을 생각하여, 싼 사료가 왜 싼가를 분석, 검토한 후에 사료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조 홍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1. 개 요

9. 23일부터 배합사료가격이 수입 옥수수 가격의 하락과 정부관리 양곡부산물을 비롯하여 민수도입 소맥가공부산물의 가격 인상으로 재조정되었다. 재조정된 내역을 보면 양계용 배합사료가격은 하향 조정되었으나, 양돈 및 축우용 사료는 약간의 가격상승 요인이 나타나 대부분의 사료메이커는 종전 판매가격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인고 일부메이커는 부득히 약간씩 상향조작을 하는 공장도 있는 것 같다. 또한 칩채상태에 있던 배합사료생산량은 5월 이후 약간씩의 수요증가를 가져와 1월대비 5~8월에는 25~30%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특히 9월 이후의 생산증가가 현저한 것 같다.

국제적 사료곡물수급추세와 가격동향을 보면 미국의 사료곡물작황이 금년도에는 일기가 비교적 순조로와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으며 옥수수의 국제시세도 12월 선여적분이 8/13일 현재 한국도착에 \$149이든 것이 9/11~10/14일 현재까지 \$137~142 수준에서 비교적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10/17일부터 소련이 다시 추가곡물구매를 개시하였다 함으로 이의 영향을 받아 곡물 가격이 소용돌이 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현재까지 구매확정된 사

료용 옥수수의 사용완료 시기는 1월 중순이로 추정되므로 계속 원료구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곡물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크게 주목된다. 이밖에 국내 주요 단미사료시세는 도입옥수수와 어분을 제외하고는 계속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배합사료의 원가상승요인을 압박하고 있으나 도입옥수수의 농협판매가격(고정단가)이 미국산이 톤당 74,205원(서울공장 도착가격 약 8만원)이므로 이와같은 고정단가의 변동이 없었던 배합사료의 수급원활과 가격안정면에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앞으로 양계사육수의 과도한 증식현상이 초래된다면 그만큼 사료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내국산 자재의 물량 수급과 가격면에도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주곡의 완전자급화를 목표로 1976년도에는 대맥 1.7천만석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리가 증산될 경우 그 일부는 사료용 옥수수 대체공급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명년도 하반기 이후 보리의 곡류 사료대체화가 주목된다.

2. 미국의 농작물 작황

10. 13일 미농무성이 발표한 1975. 10. 1 현재 작황을 보면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표 1>

1975. 10. 1 현재 미국의 농산물작황 예상량

단위 : 1,000

종 별	단 위	1974	1975 9/1	1975 10/1	대 비	
					1975. 10. 1 1974	1975. 10. 1 1975. 9/1
대 두	부 톤	1,233,425 (33,568.9)	1,442,422 (39,257.0)	1,473,782 (40,110.5)	+19.5%	+2.2%
옥수수	부 톤	4,651,167 (118,144.3)	5,687,248 (144,461.8)	5,737,266 (145,732.3)	+23.4	+0.9
소 맥	부 톤	1,793,322 (48,807.1)	2,136,334 (58,142.5)	2,137,904 (58,185.1)	+19.2	+0.1
수 수	부 톤	628,081 (15,953.9)	785,475 (19,951.9)	775,539 (19,699.5)	+23.5	△1.3
연 맥	부 톤	620,539 (15,762.3)	177,754 (17,215.6)	677,754 (17,215.6)	+9.2	0
대 맥	부 톤	308,077 (6,707.5)	381,438 (8,304.7)	381,438 (8,304.7)	+23.8	0
아 마	부 톤	13,337 (338.8)	16,140 (410.0)	15,746 (400.0)	+18.1	△2.4
쌀	부 톤	114,096 (2,328.9)	124,813 (2,547.7)	122,388 (2,498.2)	+7.3	△1.9

註 1) ()내는 톤임 2) 자료 : 로이터통신에서

9/1 현재 작황에 비하여 대두 옥수수 및 소맥 등이 약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수수, 아마, 그리고 쌀이 약간 감소추세에 있으나 비교적 작황이 양호하고 특히 옥수수 생산 예상량은 사상 두번째로 대풍작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옥수수 수급에 크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되었다. 10/1 현재 작황을 1974년 생산실적과 대비하면 옥수수 23.4%, 대두 19.5%, 소맥 19.2%, 수수 23.5%, 연맥 9.2%, 대맥 23.8%가 각각 증산 예상되고 있으나 특히 사료원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옥수수 수수 대맥 등이 23% 이상 각각 크게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비교적 전망이 밝다고 보겠다. 곡물의 수확예상 면적을 보면 옥수수 2.1%, 대두 2%, 수수 6.6%, 연맥 4.6%, 대맥 4.4% 그리고 소맥이 5.2%, 쌀이 6.9%가 각각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또한 단위당 생산수량을 보면 전년대비 옥수수 20.9%, 수수 49.0%, 연맥 4.3%, 대맥 18.5%, 전소맥이 23.5%가 각각 증가하였는 바 생산예상량의 증가는 재배면적의 증가보다는 기상조건이 비교적 양호하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데 보다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으며 재배면적의 확대는 최근

수년간 곡물시세가 유리하였기 때문에 미국농민의 생산의욕이 고취된 까닭이라 볼 수 있다.

3.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1975. 6. 13일 이후의 옥수수, 대두박 및 소맥의 한국도착기준(C&F) 가격을 보면 8/13일 시세가 가장 등귀하였다가 9/11에 8월 이후 최하시세를 나타내고 그후 다시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옥수수의 12월 선적분이 톤당 \$142에서 \$138에 거래되고 있다. 대두박의 경우도 8/13일에 톤당 \$220에서 10/13 이후 \$205~208에 거래되고 있는바, 8/13경에 최고시세를 기록하였던 것은 7/22일까지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약 1천만톤 이상의 곡물을 구매하고 또한 1,000만톤 정도의 추가곡물구매설이 떠도는 가운데 8/11 작황발표가 7/11 작황발표보다 크게 생산예상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에 자극을 받아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농민이나 수출업자들의 대소곡물수출 희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부두노조의 끈질긴 반대로 대소 추가곡물판매가 중지되었고 또한 8월중순 이후 비교적 순조로운 기상조건으로 생산예상량이 9월 이후 안정되어 거래가격이

〈표 2〉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단위 : C&F 톤당 \$

종 별 월 일	옥 수 수			대 두 박			소 맥		
	12	3	5	11	1	3	12	3	5
6/13	119	122	124	205	208	210	139	142	144
7/14	119	121	123	215	219	220	165	164	164
8/13	149	151	153	220	217	279	182	186	188
9/11	137	139	141	211	210	212	174	178	180
9/22	142	145	145	213	216	219	180	184	184
9/30	142	144	145	216	220	223	178	183	184
10/10	140	143	143	123	215	217	174	179	180
10/13	138	140	140	205	213	209	169	175	176
10/14	139	141	142	208	209	211	172	177	179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0/17일 들려오는 외신보도에 의하면 소련이 추가로 450만톤의 곡물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추가로 600만톤 정도를 구매할 예정으로 있다고 함으로 이와같은 소련의 추가곡물 구매가 실현된다면 사료곡물의 국제시세는 크게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년의 작황규모로 보아 각국의 사료수요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1972년도 하반기 이후의 소련의 대량 곡물수입으로 빚어졌던 1973년도의 국제곡물 파동과 같은 대곡물파동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지않는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미국이 지난해에는 흉작으로 재고량이 격감되었으나 금년도의 대풍작으로 말미암아 소련이나 동구권에서 대량의 곡물을 수입한다해도 곡물 거래가격은 등귀하지 않을 것이라 함으로 기대해 보는 바이다.

4. 사료용 옥수수 확보

1975. 10. 15 현재 도입예정으로서 있는 사료용 옥수수의 구매내역을 보면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모선에서 총 133천톤을 도입하게 되며 C&F 평균단가는 \$ 138.75 ~ \$ 144.95의 범위에 속한다. 이와같은 물량은 대략 76.1월중순까지 공급가능하리라 예견되는바 이와같은 옥수수 공급가격은 사료가격 안정기금 운영 요령에 의하여 고정단가가 결정되었으며

〈표 3〉 옥수수 도입 계획표

모선별 도입 예정량	C&F 단 가	출항예정일자	도착예정일자	도착항 산 지
1) 4,896	\$ 144.75	10/ 1	10/13	인천 태 국
2) 5,000	144.95	10/16	10/30	" "
3) 5,000	144.95	10/13	10/25	" "
4) 5,900	142.20	10/ 9	10/19	부산 "
5) 5,000	141.50	10/19	10/29	미 정 "
6) 5,000	138.50	10/23	11/ 5	" "
7) 27,348	143.94	10/ 1	10/30	인천 미 국
8) 5,000	139.45	10/21	11/ 3	미 정 태 국
9) 35,000	139.25	10/15	11/15	<부산 미 국
10) 35,000	138.75	10/25	11/25	인천 미 국

현재까지 구매한 수입가격은 이 고정단가의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안정된 가격으로 배합사료공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원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옥수수 가격 변동에 의한 배합사료 원가변동 요인은 없다고 보겠다. 현재의 옥수수도착 예정시기로 보아 10월말까지는 약간의 수급상 차질을 초래하였으나 10/30일에 27,348%의 미국산 옥수수가 도착된다면 옥수수 수급상 차질은 없을 것이다.

5. 부산물(쇄설류와 강류) 가격인상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양축가에게 대한 간접보상조로 양특회계의 막대한 결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던 제분시 생산되는 민수용 소맥피 가격을 7/23일부터

36kg드리 포장당 650원에서 1,080원으로 66%를 인상한데 이어 9/24일에는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판매가격에 비하여 70%수준에서 138.5%까지 가격을 상향조정하므로써 시중시세와의 격차를 어느정도 축소시켰으나 아직도 시중가격과의 격차는 크게 남아있다. 인상폭은 쌀설류 등 쌀래기가격이 60~70% 조정된데 비하여 탈지강 맥강 소맥피 등은 130% 이상 인상되었다. 그러나 정부관리양곡 부산물가격을 지나치게 시중가격 수준까지 인상한다면 시중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수요자의 인수회피 등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이 힘들며 또한 이와같은 정부관리양곡 부산물은 정부재산이기 때문에 자유판매가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재산을 매각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지상에 공고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약 600여개의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이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또한 계절별로 가공되는 곡종과 수량의 차이가 있고 또한 생산시기가 고르지 않으며 부산물 생산지역과 양축수요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매각공고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일시에 대량을 매각하게 되면 실수요자인 양축가는 자본이 빈약하여 정부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자에게 응찰하게 되므로 자연히 자본의 여유가 있는 상인들에게 결과적으로 매각하게 된다. 그러면 실수요자인 양축가는 상인을 통하여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현행제도에 의한 생산지축협을 통하여 공급받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며 정부관리 양곡부산물판매 가격을 시세로 비교하여 적정가격으로 거래되도록 조정하면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민수용 소맥피는 판매제도를 자유화하여 적정가격으로 자유로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강류사료파동을 방지하고 양축가에게는 사료선택의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함으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보장해 주는 동시에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편중과용으로 사료자원의 낭비는 물론 이로 인한 사료수급규모의 팽창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료의 품질보장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한다는 견지에서 자유화하는

<표 4> 정부관리 양곡부산물 가격인상

단위 : 원

품 목	중천 가격		인상 가격		인상율 (%)
	가마당	kg당	가마당	kg당	
백 쌀 미	1,240	22.96	2,160	40.00	74.2
설 미	1,240	22.96	1,980	36.67	59.7
미 강	580	16.11	1,380	38.33	137.9
탈지 강	390	10.83	930	25.83	138.5
맥 쌀	1,000	18.52	1,660	30.74	66.0
맥 강	420	11.67	980	27.22	133.2
눌린보리쌀래기	1,000	18.52	1,700	31.48	70.0
눌린보리겨	420	11.67	980	27.22	133.2
밀쌀래기	1,000	18.52	1,700	31.48	70.0
소 맥 피	460	12.78	1,080	30.00	134.7
소 맥 강	420	11.67	980	27.22	133.2
눌린밀쌀래기	1,020	18.52	1,700	31.48	70.0
눌린밀겨	460	12.78	1,080	30.00	134.7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6. 주요 단미사료시세

1975. 10. 15 현재 단미사료시세를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보면 대두박과 어분(중품)이 하락한 반면 곡류사료가 15~25%, 임박 호마박이 약 4%, 채종박이 33%, 소맥피가 57.1%, 맥강 탈지강 등 강류사료가 7~8%가 양등되

<표 5> 주요 단미사료 시세표 단위 : 원/kg

사 료 명	서울지방 도매시세			가격상승율 (%)	
	74 10/15	75 9/15	75 10/15	75. 10. 15	
				74 10/15	75 9/15
옥수수(도입)	69.36	97	80	15.3	△17.5
옥수수(국산)	80	96.50	100	25.0	3.6
대두박	127	104	104	△18.1	0
임 박	84	84.50	87.50	4.2	3.6
호마박	84	83	87	3.6	4.8
채종박	54	65.30	71.80	33.0	10.0
옥수수배아박	49	55.80	60.70	23.9	8.8
맥 강	42	42.80	44.80	6.7	4.7
탈지강	43	42.80	46.50	8.1	8.6
소맥피	21	21	33.00	57.1	57.1
어분(상)	128	141	140	9.4	△0.7
어분(중)	108	120	105	△2.8	△12.5

었다. 곡류사료가격이 앙등한 것은 옥수수 실수입가격이 앙등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소맥피 가격이 폭등한 것은 36kg드리 포장당 650원에서 1,080원으로 판매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전월동기간과 비교하여 보면 도입옥수수 17.5% 그리고 어분(상품 중품)시세가 하락하였을뿐 기타 원료는 전반적으로 4~10% 범위내에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9월하순에 정부가 강류사료 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상승율이 근소하게 나타난 것은 현재 강류사료의 시중거래시세가 기타 사료와 대비하여 적정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7. 배합사료가격 전망

10/15일 현재 양계용 배합사료 가격을 보면 <표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거래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생산공장별로 약간의 가격차이가 형성되고 있으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과의 격차는 kg당 6~12원 범위내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이와같이 공장별로 가격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살펴 보면 동일 품종의 사료라 하더라도 그 사료가 지니고 있는 영양수준이 배합사료 사료원료의 종류와 배합율의 차이에서 생기게 되고 또한 사료공장의 입지적여건과 자본력의 격차, 내국산 원료구매의 유리성 여하, 경영합리화의 기여도 및 사료과학응용 등 기술의 격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사료가 지니고 있는 영양수준과 기업의 기본이 되는 자본(규모에 불구하고 타인자본의 의존도가 낮은 것을 말함)의 격차에서 오는 원인이 가장 큰 것 같다.

<표 6> 배합사료가격 1975. 10. 15 현재

사 료 명	평균가격	최고가격	최저가격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차
어린병아리	97.60	104	95	9
중병아리	85.60	93	82	11
큰병아리전기	76.70	80	74	6
큰병아리후기	76.90	81	75	6
산란초기	85.40	89	83	6
산란중기	80.40	85	77	8
산란말기	75.90	82	71	11
육계전기	103.60	110	102	8
육계후기 I	101.10	110	102	8
육계후기 II	99.70	118	96	12
중계사료	92.60	98.50	90	6.50

따라서 양축가 여러분은 사료선택에 있어서 외형상의 물량만을 살것이 아니라 배합사료의 생명인 그 사료가 지니고 있는 효율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대다수의 양축가는 경영비의 과중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사료가 품질이 비슷한 것처럼 싼 사료만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싼 사료는 우선 경영비는 적게 들른지 모르나 사료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위당 생산비가 더 많이 소요되어 손실을 보게 되는가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료에 비하여 싼 사료가 있을 때에는 그 사료가 왜 싼가를 일단 분석(검토)하시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신 연후에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권해드리는 동시에 배합사료가격은 앞으로 특별한 사태발생이 없는 한 계속 안정되리라 기대되나 경영의 안정을 기하려면 무엇보다도 축산물 수급의 균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생산조절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 월간양계 창간 6주년 ※

보다 알찬 내용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간 양계를 구독하시려는 분은,

서울 중구 양동 44~28 대한양계 협회로 연락하십시오.

22-3571~2 대체구좌 519272번